

지하상가시설의 부하특성을 고려한 전기설비 설계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sign Standard of Electrical Installations and
Load Characteristics in Underground Streets)

김세동*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최도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류승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원

1. 서론

계속되는 경제성장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전기 에너지의 소비는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 특히 대규모 지하상가시설과 같은 전력다소비 시설에서는 전력의 효율적 이용에 의한 에너지절감은 물론 설계단계에서의 합리적인 전기설비설계가 요청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지하상가시설의 부하특성에 적합한 합리적이고 통계적인 부하종별 변전시설밀도와 부하밀도에 대한 적용 기준이 요구되며, 보다 정확한 장래 전력수요 예측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지하상가시설의 설비구성과 가동특성을 고려한 전기설비 현황 및 전력사용 부하 특성을 실측, 조사하여 변전시설용량의 합리적인 설계를 위한 부하종별 변전시설밀도와 수요증가율, 수용률 기준을 제시한다.

2. 부하특성 분석

2.1 일부하특성

그림 1은 하절기중 최대수요전력 발생일의 일 부하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전 부하기기의 가동특성을 살펴보면, 10시부터 부하 가동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12시경에 최대수요전력을 나타내고 있었고, 20시 까지 최대수요전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중에서도 16시경에 1일중 최대수요전력을 나타내고 있었는데, 이의 원인으로는 일반동력과 냉동기 부하는 최대전력 발생동안에 일정하게 유지된 반면에 조명부하는 16시부터 20시까지 조금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오후시간대부터 조명기기의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반 건축물과는 달리 상가시설의 특성상 점심시간대부터 저녁시간대 까지 부하 가동이 정상적으로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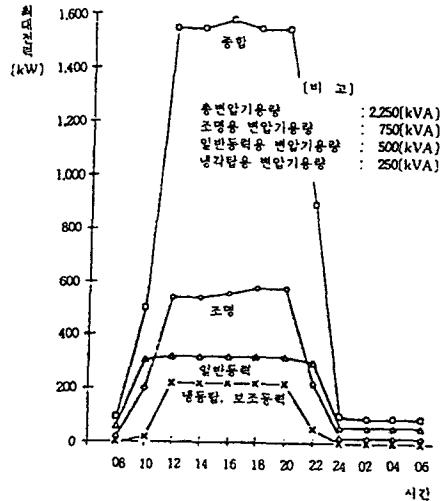


그림1. 일 부하곡선
Fig.1 Daily load curve

2.2 주간 부하특성

K 지하상가(서울지역)의 1년중 최대전력이 발생한 일주일간 시간대별 부하전류의 사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2시 이후에 정상적인 부하가동이 시작되어 20시 까지 변동없이 계속 가동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요일(휴무일)의 경우 완전 폐점으로 부하 가동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월요일에는 정상적인 부하가동이 14시 이후에 발생하고 있었고, 주(週)중에서 가장 늦게 상점들이 개점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3 월 부하특성

그림 2는 N 지하상가(부산지역)의 월별 최대 수요전력의 발생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일반적으로

5월(빠른 경우에는 4월)부터 10월(늦은 경우에는 11월)까지 냉방기를 가동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냉방기 계절동안의 최대수요전력은 중간기 계절과 난방기 계절보다 500~600[kW] 높게 최대수요전력이 발생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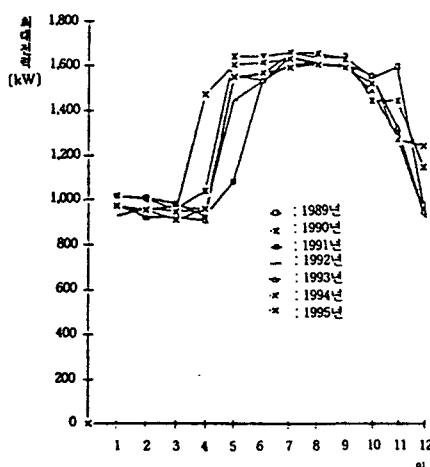


그림 2. 월 부하곡선
Fig. 2 Monthly load curve

또한 그림 3은 K 지하상가(서울지역)의 월별 최대수요전력의 발생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대체로 6월부터 9월 까지 냉방기를 가동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냉방기 계절동안의 최대수요전력은 중간기 계절과 난방기 계절보다 400~500[kW] 높게 최대수요전력이 발생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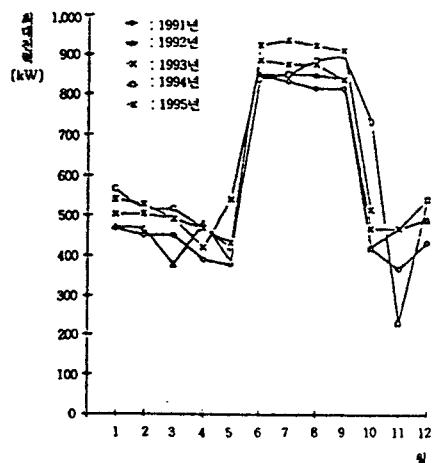


그림 3. 월 부하곡선
Fig. 3 Monthly load curve

이와같이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지하공간의 특성상 냉방기 가동기간이 6개월에서 8개월 동안 계속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이에 대응한 에너지 절약형 냉동기시스템의 채택이 요구된다.

3. 부하종별 전력밀도와 수요증가율, 수용률의 적용실태 및 기준(안)

3.1 부하종별 적용실태 및 기준(안)

3.1.1 조명용 변전시설밀도와 부하밀도

1) 적용실태 및 조명부하의 특성

가) 적용실태

본 실태조사에서는 조명용 변압기의 용량과 단위면적(점포면적과 보도면적을 기준)을 기준으로 변전시설밀도를 분석하였으며, 표 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점포면적과 보도면적 기준시 평균 조명용 변전시설밀도는 66.2 VA/m^2 로 분석된다.

그러나, 국내 2개소의 지하상가시설은 일본 아젤리아 지하상가시설과 비슷하게 변압기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반면에 조명수준은 일본의 $1/2 \sim 2/3$ 정도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내 2개소의 지하상가시설은 일본 아젤리아 지하상가시설에 비하여 매우 적게 나타났다.

점포당 제한용량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의 점포 조명용 부하밀도는 평균 138.5 VA/m^2 로 분석된다. 그러나, 일본 Azalea 지하상가에 적용된 점포당 조명용 부하밀도와는 많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조명용 변전시설밀도 및 부하밀도

Table 1. Substation Facility Density and Load Density for Lighting

지하 상가명	조명용변전 시설밀도(점 포면적과 보도면적 기준)	조명용 부하밀도 (점포당 제한용 량을 기준)	조명 수준 [lx]
국내 N	54.1 VA/m ²	166.7 VA/m ²	보도: 250~270 중앙홀: 100
L	85.1 VA/m ²	143.7 W/m ²	보도: 200
D	85.7 VA/m ²	113.6 W/m ²	보도: 390~440
K	39.8 VA/m ²	130.0 W/m ²	보도: 200
평균	66.2 VA/m ²	138.5 W/m ²	
일본 아젤리 아	86.1 VA/m ²	설계기준 - 물품판매점: 전등 200VA/m ² - 식료품점: 전등 150VA/m ² - 음식점: 전등 150VA/m ²	조명기준 - 보도: 500 - 광장: 400~600 - 점포: 500

나) 규정상의 검토

사무실, 상점, 은행 등의 표준부하밀도는 30 VA/m^2 , 다방 등의 표준부하밀도는 20 VA/m^2 이며, 상점의 진열창에 대하여는 진열창 폭 1m 에 대하여 300 VA 를 별도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조명부하의 특성과 수요증가 현황

지하상가시설에 있어서 전력사용량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부하는 조명부하로 지적된다. 일례로, 한 지하상가에서 새로운 상품전시용 조명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전 지하상가에 까지 확산되어 하루 이침에 조명용 사용전력은 크게 증가하는 현상이 야기된다. 이로 인하여 일부 지하상가시설의 경우에는 변압기의 과부하로 변압기가 폭발한 사례도 있다.

지하상가시설의 특성상 냉방부하가 가동되기 전월(月)인 경우에 주로 사용되는 부하가 대부분이 조명부하이다. 따라서, D지하상가시설의 경우에 3월을 기준으로 하여 1984년 이후 최대사용전력의 증가 추이 조사결과, 1984년도부터 1995년 사이의 3월 기준 최대전력은 432kW 에서 742kW 로 증가하였고, 12년 사이에 약 70%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조명기준의 향상 및 상품전시용 조명기기의 개발과 더불어 지하상가의 밝은 조명 연출을 위한 분위기 조성의 봄으로 점포마다 예전에 비해서 많은 조명기기를 사용하고 있고, 조명용 전력소비가 매년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 설계기준(안)

(1) 지하상가시설의 용도와 사용목적을 고려하여 조명용 부하밀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경제성장에 따른 조도수준의 향상과 관련한 부하증가예측 등을 종합하여 고려한다. 실태결과 및 관련기준 등을 감안하여 점포면적과 보도면적 기준시 조명용 변전시설 밀도는 70 VA/m^2 이상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조명방식은 지하공간의 페적한 조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보다 밝은 간접조명방식과 전반 매입조명방식을 병용하여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보도 및 광장, 점포 등에는 500lx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지하상가시설의 조명설비는 중요도에 따라 크게 보도조명용, 비상조명용(방재센터, 각종 설비의 운전조작에 필요한 장소의 조명, 정상 조명부하의 1/6 정도 확보), 일반 조명용(점포, 사무실 등)으로 구분한다. 보도조명용 부하는 가로등 전기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전용 배선으로 하며, 수전도 단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지하상가시설에 있어서 조명용 전력소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전자식안정기 및 고효율 램프, 고효율 반사갓 등을 채택하여 에너지전약을 도모하여야 한다.

(5) 지하상가시설에는 자연채광이 가능하도록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천공조건에 따라서 인공조명과 병용하여 조명제어함으로써 에너지절감을 도모하도록 한다.

3.1.2 일반동력용 및 냉동기용 변전시설밀도와 부하밀도

1) 적용실태와 규정상의 검토

가) 적용 실태

(1) 일반 동력용

본 실태조사에서는 일반동력용 변압기의 용량과 단위면적(점포면적과 보도면적을 기준)을 기준으로 일반동력용 변전시설밀도를 분석하였으며, 지하상가시설마다 일반동력용으로 적용되는 부하종류가 다소 차이는 있지만,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점포면적과 보도면적 기준시 일반동력용 변전시설밀도는 $30 \sim 54 \text{ VA/m}^2$ 정도가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에 일본 Azalea 지하상가시설의 경우에는 167.4 VA/m^2 가 적용되었으며, 국내 수준의 4배 이상이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2. 일반동력용 변전시설밀도 및 부하밀도

Table 2. Substation Facility Density and Load Density for Power

지하 상가명	일반동력용 변전시설밀도 (점포면적과 보도면적 기준)	일반동력용부하 밀도(점포면적과 보도면적 기준)
국내N L D K	36.1 VA/m^2 (난방, AHU, 소방, 급배수, 정화 조, E/S용, 분수대 등)	53.3 W/m^2
	30.9 VA/m^2 (소방, 급배수, 정화조)	34.4 W/m^2
	53.6 VA/m^2 (난방, AHU, 소방, 급배 수, 정화조 등)	39.1 W/m^2
	39.8 VA/m^2 (냉각탑 보조동력, 난방, AHU, 소 방, 급배수, 정화조)	-
평균	40.1 VA/m^2	42.3 W/m^2
일본 아젤리 아	167.4 VA/m^2 (냉동기 보조동력용, 난방, AHU, 소방, 급배수, 정화 조, E/S, 분수대시설 등)	설계기준 -식료품점 : 동력 60 W/m^2 -가스를 사용하는 음식점 : 동력 60 W/m^2 -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음식점 : 동력 800 W/m^2

(2) 냉동기용

수변전설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냉동기 부하는 그 방식에 따라 소요전력이 크게 다르며,

터보식 냉동기(냉매가스를 전기모터로 회전 압축후 증발시 냉방), 흡수식 냉동기(배열, 증기를 이용한 흡수식 냉방) 및 스크류식 냉동기의 적용에 따라 변전 용량 결정이 크게 다르다.

실태 결과,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냉동기용 변전시설밀도는 $31 \sim 72 \text{ VA/m}^2$ 정도가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냉동기의 적용 방식에 따라 변압기 백크 구성이 크게 다르다.

표 3. 냉동기용 변전시설밀도 및 부하밀도

Table 3. Substation Facility Density and Load Density for Chiller

지하 상가명	냉동기용 변전시설밀도 (점포면적과 보도면적 기준)	냉동기용부하밀도 (점포면적과 보도 면적 기준)
N	72.1 VA/m^2 (터보식 냉동기, 냉각탑 및 보조동력 포함)	53.3 W/m^2
L	30.9 VA/m^2 (흡수식 냉난방 겸용)	61.6 W/m^2
D	냉동기용 : 42.9 VA/m^2 (스크류식 냉동기) 냉각탑 및 보조동력용 : 80.4 VA/m^2	냉동기용 : 42.0 W/m^2 냉각탑 및 보조동 력용: 42.0 W/m^2
K	39.8 VA/m^2 (터보식 냉동기만 포함. 냉각탑, 보조동력을 제외)	-

나) 규정상의 검토

내선규정에 의하면 전동기부하의 산정은 개개의 명판에 표시된 정격전류(전부하전류)를 기준으로 하여 부하용량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반용 전동기일 경우에는 그 정격출력에 따른 규약전류(설계기준치)를 정격전류로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에어컨디셔너 또는 냉동기 등 특수한 용도의 전동기부하의 산정에는 그 전동기 또는 기기의 명판에 표시된 정격전류외에 특성 및 사용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관련 문헌상의 부하밀도

일반적으로 건물의 규모 및 용도, 냉방시스템의 방식(터보식, 흡수식)을 고려하여 유사한 건물의 조사데이터를 토대로 단위면적당의 부하용량, 즉 부하밀도를 추정하여 설비용량을 산정하고 있다.

일본 전설공업협회의 자료에 의하면, 일반동력과 냉방동력, 냉동기용을 포함하여 $75 \sim 78 \text{ VA/m}^2$ 정도로 제시하고 있고, 냉동기용으로는 38 VA/m^2 정도 제시하고 있다.

국내 67개소 사무소용 건물의 동력용(냉동기 포함) 변전시설밀도는 평균 61.3 VA/m^2 로 분석되었고, 터보식 냉동기를 설치한 66개소 사무소용 건물의 냉동

기용 변전시설밀도는 평균 31.7 VA/m^2 로 분석되었다.

2) 설계기준(안)

(1) 일반적으로 설계 당초에 동력설비 및 냉동기의 형식 결정은 기계 설계에서 결정이 된 다음 전기부하 조건이 결정됨으로 사전에 기계설계 담당자와 충분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동력부하용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각 전동기의 부하조건, 입력조건, 사용전압, 기동방식 등을 가능한 정확히 파악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아울러, 동력설비는 용도별, 운전기간별, 비상동력용으로 구분하여 변압기 백크 구성을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수변전설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냉동기 부하는 그 방식에 따라 소요전력이 크게 다르며, 터보식 냉동기(냉매가스를 전기모터로 회전 압축후 증발시 냉방)에서는 1 냉동톤당 1kW 정도의 부하용량과 부속동력용 부하용량을 산정하며, 흡수식 냉동기(배열, 증기를 이용한 흡수식 냉방)에서는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부속동력용 부하용량만을 산정한다.

따라서, 냉동기를 흡수식으로 채택하는 경우에는 냉동기용 부하가 크게 축소되어 별도의 냉동기용 변압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지하상가시설은 장래의 부하증가에 대하여 변전용량의 증설이 쉽지 않으므로 경제성장에 따른 패적 환경의 조성과 관련하여 보다 정확한 부하 증가 예측을 하여야 한다.

실태 결과 및 관련 기준 등을 고려하여 일반동력용 변전시설밀도는 점포·보도면적 기준시 45 VA/m^2 이상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냉동기용 변전용량은 냉동기의 형식과 부속동력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3.2 종합변전용량과 수용률, 수요증가율의 적용실태 및 기준(안)

1) 적용 실태

가) 종합 변전시설밀도 및 부하밀도

본 실태조사에서는 종합변전시설용량과 단위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종합변전시설밀도 및 전부하설비용량과 단위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종합부하밀도를 분석하였다.

실태 결과,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냉동기의 형식과 적용 부하특성, 종합 수용률 등이 다르지만, 국내 8개소에 적용한 종합변전시설밀도는 전체 면적 기준시 평균 146.1 VA/m^2 로 분석되고, 점포·보도·사무실 면적 기준시 종합변전시설밀도는 186.2 VA/m^2 로 분석된다.

그리고, 종합부하밀도는 전체 면적을 기준하여 평균 174.1 W/m^2 로 분석되고, 점포·보도·사무실 면적 기준시 215.6 W/m^2 로 분석된다. 일본 아젤리아 지하상가시설의 경우에는 국내의 적용실태보다 50 ~

90 VA/m² 이상 높게 시설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종합 변전시설밀도 및 부하밀도

Table 4. Total Substation Facility Density and Load Density

지하 상가명	종합 변전시설 밀도 [VA/m ²]		종합 부하밀도 [W/m ²]		종합 수용률 [%]
	전연면 적기준	점포·보도 면적기준	전연면 적기준	점포·보도 면적기준	
국내 N	126.8	162.3	143.5	183.7	65
L	122.7	146.9	181.7	217.5	43
D	210.7	262.5	197.1	245.5	56.3
K	124.2	149.3			40~50
E	96.0				
F	163.2	209.8			
G	170.6				
I	154.9				
평균	146.1	186.2	174.1	215.6	54.8
일본아 젤리아	196.1	276		가스식3기 터보식1기	

비고 : 1) 전연면적의 기준은 총연면적에서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면적임.
2) 변압기시설 용량은 주변압기의 용량을 기
준으로 함.

나) 수용률

실태 결과,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N 지하상가시설의 종합 수용률은 65%, L 지하상가시설의 종합 수용률은 43%, D 지하상가시설의 종합 수용률은 56.3%로 나타났고, 종합 수용률의 평균값은 54.8%로 분석되었다.

부하종별 수용률 분석결과, N 지하상가시설의 경우에 냉동기용 부하에 대한 수용률은 100%, 냉각탑 및 보조펌프용 부하에 대한 수용률은 82.4%, 일반동력용 부하에 대한 수용률은 44.7%, 조명용 부하에 대한 수용률은 52.3%로 분석되었다.

다) 장래의 수요증가율

1985년도 이후 7개소 지하상가시설의 년간 최대사용전력치의 실태결과, '91 ~ '95년 사이의 5년간 최대사용전력의 증가율은 평균 10.6% 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85 ~ '95년 사이의 11년간 최대사용전력의 증가율은 평균 22%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증가요인은 조명기준의 향상 및 상품전시용 조명기기의 개발 보급으로 인한 조명부하가 증가되고 있고, 가스기기의 사용 대신에 전기레인지기를 사용함으로써 일반 콘센트부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D지하상가시설의 경우에 중간기 계절인 3월을 기준하여 1984년도부터 1995년 사이의 최대전력은 432kW에서 742kW로 증가하였고, 12년 사이에 약 70%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같이 조명기기의 사용 급증으로 인한 조명 발생열로 냉방부하가 가중되어 냉방용 전력소비가 매년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에 조명기준의 향상 및 상품 전시용 신조명기구의 사용이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하상가시설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점포별 조명사용량의 제한 관리를 실시하고, 또한 에너지절약형 냉동시스템(빙축열방식, 흡수식 냉동기)을 채택함으로써 최대사용전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실시하여 최대전력의 증가율이 낮은 곳도 있다.

2) 설계기준(안)

(1) 지하공간시설의 규모, 용도, 냉동기 형식, 부하 용도(일반/비상부하, 계절부하, 조명부하 등), 부하종별 특성을 고려하고, 정전 및 전기화재사고에 대비한 변전설비의 합리적인 뱅크 구성을 하여야 한다.

(2) 부하밀도는 부하종별 특성과 수용률, 장래의 수요증가율을 고려하여 관련 기준과 실태자료를 토대로 적정하게 설정하여야 하며, 종합부하밀도(전연면적 기준)는 170 W/m² 이상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수용률은 부하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기준과 실태자료를 토대로 적정하게 설정하여야 하며, 냉동기용 부하는 100%, 냉동기 보조동력용 부하는 85%, 일반동력용(난방용, 금수용, 소방용, 정화조용, 승강기용, 분수대용, 기타) 부하는 55%, 조명용 부하는 60% 정도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일반적으로 장래의 부하증가에 대비하여 5 ~ 10년 정도 예전하여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하상가시설의 조명기준 향상과 부하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기준과 실태 자료를 토대로 적정하게 설정하여야 하며, 5년간 최대전력의 평균 증가율은 10%, 10년간 최대전력의 평균 증가율은 20% 이상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검토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지하상가시설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부하종별 변전시설밀도와 수요증가율, 수용률 기준(안) 설정을 위하여 지하상가시설의 부하특성과 전력사용실태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하절기 주간(週間)중의 일부부하특성은 10시 부터 부하가동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12시~20시 까지 최대전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1일 중 최대수요전력은 16시경에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월부하특성은 지역과 계절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4~5월에 냉방이 시작되어 10~11월 까지 계속되며, 냉방기간이 6~8개월 동안 계속되는 현상이 발생함으로써 이에 대응한 에너지절약형 냉동기시스템의 채택이 요구된다.

(3) 실태 결과, 4개소 지하상가시설의 종합 수용률은 52.2%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설비이용면에서 비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부하 종별 수용률 분석 결과, N 지하상가시설의 경우에 냉동기용 부하에 대한 수용률은 100%, 냉각탑 및 보조 펌프용 부하에 대한 수용률은 82.4%, 일반동력용 부하에 대한 수용률은 44.7%, 조명용 부하에 대한 수용률은 52.3%로 분석되었다.

(4) 실태결과 및 관련 기준을 감안하여 점포면적과 보도면적 기준시, 조명용 및 일반동력용 변전시설밀도는 각각 $70 \text{ VA}/\text{m}^2$, $50 \text{ VA}/\text{m}^2$ 이상 고려하는 것 이 바람직하고, 냉동기용은 냉동기 형식과 부속동력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5) 1985년도 이후 7개소 지하상가시설의 년간 최대수요전력 발생현황 조사결과, '91~'95년 사이의 5년간 최대수요전력은 평균 10.6% 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85~'95년 사이의 11년간 최대수요전력은 평균 22% 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증가요인으로는 조명기준 향상과 신조명기기의 보급으로 조명용 전력이 가장 크게 급증된 것으로 지적되었다.

(6) 수용률은 장래의 수요 증가 및 부하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냉동기용 부하는 100%, 냉동기 보조동력용 부하는 85~90%, 일반동력용(난방용, 급수용, 소방용, 정화조용, 승강기용, 분수대용, 기타)부하는 55~60%, 조명용 부하는 65~70% 를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참 고 문 헌

- 1) 김세동 외, 지하생활공간 개발 요소기술 연구(전원설비분야), 건기연95-ME-1401, 1995
- 2) 지철근 외, 건물의 수용률 및 부동을 기준설정에 관한 연구, 조명전기설비학회지, Vol.4, No.1, 1991
- 3) 大仙壓司, 自家用受變電設備の受電設備容量, 電氣と工事, No. 3, 1996
- 4) 山岐武志, 山岐地下街アセリアの電氣設備と防災対策, 建築防災, No. 4, 1987
- 5) 渡部餘四浪, 地下建築物のデザイン手法, 丸善(株), 1986
- 6) 八木幸二, 地下空間のインティール, インティール 95 冬季號, 1988
- 7) 吉田君夫, 名古屋セントラルパーク地下街の建築と設備, 建築設備, 1989
- 8) 正置正和, 地下空間利用ガイドブック, 清文社, 1994
- 9) Raymond L. Sterling, John Carmody, Underground Space Design, Van Nostrand Reinhold, 1993
- 10) Jonathan D. Sime, Safety in the Built Environment, London New York, 1989
- 11) John Carmody, Design for People in Underground Facilities, Van Nostrand Reinhold, 1993